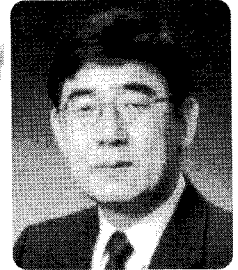


【특집】 사료산업 50년 회고와 향후 산업방향 제시

인간의 식량 공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



지 규 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주)미래자원ML 자문위원
前 한국가금학회 회장
前 한국사료협회 R&D위원

지난 7월 1일 참석했던 한국사료협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의 식순이 진행되는 동안 나 자신도 모르게 깊은 감회에 빠졌던 것 같다.

사료협회가 발족된 해(1961년)가 바로 내가 서울대 축산학과에 입학했던 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사료관련 회사에서 오신 내빈 대부분이 낫 설은,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축산학회가 1956년도에 창립된 것과 그로부터 5년 후 한국사료협회가 발족된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농업 발전단계에서 축산학과 축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하나의 역사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다.

당시 TV나 일간지에서도 외국 선진농업의 발전상 특히 덴마크 축산의 모습을 자주 소개해 주었고 그런 국가적 분위기에 나

자신도 농과대학, 축산학과로의 진학을 꿈꾸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축산학도로서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한 단면을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군 제대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서라고 생각된다.

사료회사에 근무하는 축산학과 급우들이 출장길에 회사에서 지급된 오토바이를 타고 수원 캠퍼스에 자주 들리곤 하였다. 또 먼지투성이의 사료공장에서 얼굴에 사료 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배합사료 대리점을 운영하는 친구 부부의 모습을 가까이서 볼 기회도 있었다.

'60년대 후반 국내 배합사료 총생산량이 30~40만 톤 수준의 상황에서 사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또 직업적인 의무감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전국을 누빈 축산학도들의 현장 경험은 그 후 70~80년대 배합사료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고, 오늘

의 사료산업이 있게 한 일등 공신임에 틀림 없다.

대학원 졸업 후 나의 첫 번째 직장인 동물사료연구실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초창기인 1969년도에 발족하게 된 것도 당시 사료산업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故 김춘수 박사님의 지도하에 강유성씨와 함께 한 연구실 초기 2년은 당시 우리나라 가축영양, 사료학 연구의 실정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실험사료배합기가 없어 삼을 사용해서 실험사료를 배합하였고, 변변찮은 실험실이었지만 사료자원의 개발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에 몰두하였던 시절이었다.

당시의 주 연구 테마는 부존자원의 사료화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배합사료 생산물량은 수십만 톤 수준이지만 국내 사료원료 자체가 턱 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부존자원의 사료화가 시급했었고, 우모분, 닭 내장 silage, 계분 silage 등을 개발하였었다.

초창기를 벗어난 동물사료연구실은 훌륭한 연구진, 분석기기와 연구시설을 갖추고 1988년 식품연구원에 통합될 때 까지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내 사료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1980년도의 국내 사료산업은 연간 배합사료 346만 톤을 생산하면서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다. 고려대학





교에 등지를 틀고 학생들에게 가축영양학과 축산학개론 등을 강의하면서 사료업계의 많은 분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겼다.

'80년대 초반에 사료업계에서 본인에게 문의했던 것 중에 아미노산의 생체 이용성, 사료의 대사에너지(AME) 함량 측정, Ca, P의 이용성 평가 등에 관련된 기술들이 생각난다. 이런 기술들은 정확한 사양관리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나라 사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요인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본인의 활동 영역에 속하는 영양·사료관련 교육·연구기관과 학술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 느낀 점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사료업계 자신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주문하고 싶다. 본인은 한국사료협회 연구소의 R&D위원으로 장기간 관여하면서 사료업계와 간접적인 연관을 유지해 왔다.

오랜 R&D위원 생활을 통해 느낀 점은 문제점 해결 내지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아쉬웠다. 사료가격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고, 사료 기술적 관점에서 더 활발하고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한국사료협회는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업무를 선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야할 책임이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한국사료협회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그리고 책임을 공유하는 자세를 보고 싶다.

두 번째는 국내 대학과 사료업계와의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귀국 초기에 사료기술과 관련하여 특이하게 느낀 것 중 하나는 굴지의 국내 업체들이 필요한 기술의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을 활용하지 않고 상당한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외국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관행이었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국내 대학의 연구 능력과 연구시설이 크게 발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사료회사들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을 정도로 생산규모와 기술수준이 크게 향상된 지금도 여전히 기반 지원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물론 축산학 분야 학과들의 연구와 교육이 실제적인 분야에만 집중할 수는 없지만 업계와의 밀접한 협조는 학문 본질적인 관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과 사료업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의 일부는 대학 사회(연구자)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불찰로 사료업계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세 번째로 대학(연구기관) 연구실 별로 기술적 전문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예이긴 하지만 외국의 경우 사료회사와 대학 특정 연구실 간의 협력에 의해 연구실에 전문화된 인력(post Doc.)을 확보하고 산업체가 원하는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안정된 data를 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예와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가축영양·사료학 분야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 분야를 전문화(세분화) 할수록 보다 수준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며, 이것이 사료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 축산학 분야 학술 발표장의 토론 문화의 개선을 주문하고 싶다. 학문(대학)의 발전에는 무엇보다 깊이 있는 진지한 토론 문화가 있어야 한다.

대학 사회의 SCI 논문게재를 비롯한 학술 논문 발표는 크게 늘었지만 축산학 관련 학회 학술발표장에서 진지한 토론은 여전히 보기 힘들다. 사료 관련 세미나에서도 시간 관계상 토론은 생략 한다든지, 질문이 있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라든지, 또는 한두 사람의 질문만을 받겠다는 식의 진행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게 시간적인 제한에 의해 토론 시간이 생략되는 것은 세미나를 주관하는 조직 위원회의 무관심 내지 큰 실수라고 생각된다. 사료관련 학술 발표를 포함해 모든 학술 발표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청중에게 전달 하면서 이를 통해 그 분야의 학술적·기술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발표자와 청중 간에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해 진다. 학술 발표가 충분한 토론 없이 끝나는 것은 발표자에 대한 예우 차원을 벗어나 청중에 대한 교육 기회를 놓치고, 학술발표회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사료산업기술의 향상을 제안하고 싶다. 축산분야의 국가 공인자격증은 축산기능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인공수정사 등이 있다.

인공수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자격증은 해당 범위가 너무 넓어 사료산업에 적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본다. 사료관리기술사 같은 고급 능력의 자격증 제도를 추가하여 자격증 소유자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한다면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기술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식량, 사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사료산업을 현재의 수준 까지 발전시킨 사료산업 관련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자원의 확보가 날로 더 어려워져가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사료산업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사료산업은 인간의 식량공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사료효율개선과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식품의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